

목포 교통약자 불편주는 육교 철거해야

23개 중 19개 노인 인구 많은 구도심지역에 집중 시설 낡고 제기능 못해...보행자들 무단 횡단 일수

최근 목포지역에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에 불편을 주는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육교시설이 노후화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실상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플래카드 게시대로 전락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목포 관내에는 목포역, 유달중, 연산 현대 아파트 앞 등 총 23개의 육교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19개가 구도심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구도심은 예전에는 인구밀

도가 높았으나 하강·육암 등 신도심이 형성된 이후 유동인구가 급격히 낮아져 육교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시장 상인 강모(40)씨는 "구도심에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이 고역"이라며 "젊은이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으니 철거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주민 조 모(54·연산동)씨도 "아파트 초입에 육교가 설치돼 있어 출근길 무심코 우회전하다 보면 대학생으로 보이는 보행자들이 무단 횡단하는 경

우가 많아 아찔한 경험을 했다"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육교 주변에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역설적인 육교를 하루빨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미화 시의원은 "육교는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개발시대의 부산물 성격이 강하다"면서 "육교는 장애인, 노인 등 보행 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데다가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등 보행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시설이 낡아 도심 미관을 해치거나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주는 육교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 23개 육교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우선순위를 정해 육교를 철거하고, 육교를 없애는 자리에는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자들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며 "육교 1개소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3000~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농가일손 돕는 스프링클러 8월 말부터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 신안면 하교리 들녘 배추밭에서 스프링클러(sprinkler)를 이용해 물을 뿌려주는 작업이 한창이다. 농업용 살수장치인 스프링클러는 농가의 일손을 절감해준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ark@

전남도 '행복의원 1호점' 내달 완도서 첫 진료

도, 은퇴의사 정우남씨에 현판 전달

은퇴의사를 활용해 의료 사각지대인 섬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의원' 1호점이 다음달 처음으로 완도에 문을 연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완도군 노화읍에서 '행복의원'을 운영할 정우남(68)씨에게 '행복의원 제1호' 현판을 전달했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와 소아과 전문의로 30여년 동안 근무한 정씨는 다양한 진료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노화를 보건지소에서 다음달부터 섬 주민과 소아과 환자를 위한 진료를 시작한다.

또 정씨의 부인 박성자(61)씨도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섬 지역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계획이다.

은퇴의사를 활용한 '행복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인 섬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특수시책 사업이다.

전남도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탐동 석탑 전남도 문화재 지정 예고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탐동 석탑(塔洞 石塔)이 전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됐다.

탐동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석탑은 높이 4.8m의 5층 석탑(현재는 4층 옥개석까지 남아있음)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이어 받아 고려시대 전반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석탑은 전형적인 신라계 이중기단을 사용하고 옥개석과 모서리 부분의 반전 등 통일신라시대 석탑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고려 초기의 석탑양식을 간직, 문화재자료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전남도 문화재위원회의 평가했다.

해남 덕룡산 자락에 있는 용혈암(龍穴庵)이라는 사찰에 있었던 이 석탑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마산면 공제포항을 통해 반출하려다 날씨가 좋지 않아 실패했으며 해체된 상태로 있던 것을 지역주민들이 탐동마을 앞에 옮겨 세운 특이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dia@

동북아 생물권보전 회의 20~23일 신안서 개최

'제12차 동북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회의'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신안에서 열린다.

유네스코와 환경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EABRN에 가입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시아 5개국과 카자흐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몰디브 등 동아시아 5개국 등의 생물권보전지역 전문가와 회원국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국가별 실행계획 보고서를 발표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목포대 제5공학관 오늘 개관

목포대는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와 대형 실험·실습 시설 확충을 위해 제5공학관을 건립했다.

목포대는 19일 오후 제5공학관 1층

로비에서 제5공학관 개관식을 갖는다.

5공학관은 전체면적 8414㎡·건축면적 2456㎡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

모로 기계, 조선, 신소재, 해양시스템 공학파가 입주한다.

고석규 총장은 "5공학관 개관을 계기로 호남지역 거점 공과대학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미래 그린 상용차' 개발 탄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내년부터 본격 추진

전북을 상용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들려는 전북도의 '미래 그린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총 1736억 원을 투입해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과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해 수출형 미래 그린 상용차 부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낮거나 사업목적에 불분명하고 정책 방향과 맞

지 않는 사업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내년부터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만금지역에 상용차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2020년까지 1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대와 타타대우 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참여해 부품 협력업체와 집적화를 꾀한다.

도는 이 사업에 따라 2020년까지 6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동차 수출액도 현재 44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신관사도 행차요" '신관사도 부임행사 퍼레이드'가 지난 17일 남원시 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 구간에서 진행됐다. 남원시는 관광객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매주 토·일요일에 사도행차를 재연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볼거리... 먹거리... 축제의 계절이 왔다

소리·춤에 음식관광까지 9~11월 전북 곳곳 축제 중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풍성한 축제가 펼쳐진다.

도내에서 9~11월 열리는 축제는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비롯해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김제 지평선축제', 전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음식관광축제',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익산 서동축제', '순창 장류축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세계 철새축제' 등 다채롭다.

◇다양한 전통음악 소개소리축제 =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46개 프로그램에 261회 공연으로 진행된다.

관소리를 새롭게 해석해 길놀이판·춤·소리판·창곡판으로 꾸민 '광대'의 노래'가 신선편곡을 보이고 다섯 명의 명창들이 각각 적벽가,

심청가, 흥부가 등을 들려주는 '판소리 다섯 바탕', 읍남으로 옛 명창의 소리를 감상하는 '옛 소리'의 초대'가 마련된다.

◇전통 농경문화의 진수지평선축제 = 김제 지평선축제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벽골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통 벼수확과 탈곡 등 가을걷이, 쪄모로 만든 공차기, 소달구지 타기 등 다양한 농경·시골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벽골제 전통설화와 쌍용을 주제로 한 벽골제 쌍용놀이,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벼고을 입석 줄다리기 등이 마련된다.

◇세계의 미각을 한 자리에 = 음식관광축제 = 10월 20~24일 전주 월드커피장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음식관광축제는 한국의 문화 원류를 담아

낸 장류, 잣갈, 주류, 장아찌와 세계 18개국의 와인, 치즈, 햄, 요구르트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세대를 이어온 요리 명인들의 특급 조리법들을 눈앞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한식 쿠킹클래스'와 고추장 만들기, 떡메치기, 임실치즈 만들기, 청국장 쿠키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한식광장'이 펼쳐진다.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을 한 자리에 서 만날 수 있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엑스포'도 함께 진행된다.

◇서동과 선화의 사랑·서동축제 = 삼국시대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한 '서동축제'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동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서동의 생애와 역사를 담은 무왕제례, 서동-선화 혼례식, 서동 선발대회, 서동 맨스파티, 서동 거리 퍼포먼스 등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북농기원 향기나는 '흑향 찰벼' 개발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일반 흑미(黑米)와 달리 밥에서 구수한 향이 나고 향산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흑향찰벼'를 개발했다.

전북도 농기원은 흑향찰벼의 향(香) 성분이 인도에서 인기가 있는 '바스마티' 품종보다 20% 높은 것으로 내년 품종등록을

목표로 현재 생산력을 검증 중이다.

전북도 농기원 관계자는 "흑미는 밥을 지을 때 잘 퍼지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이번엔 개발한 '흑향찰벼'는 이를 보완했을 뿐 아니라 밥에서 구수한 향이 나 먹기에 매우 좋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24~25일 전주 국제 인라인 마라톤대회

'2011 전주 국제 인라인 마라톤대회'가 24~25일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 통합체육회, 전주시 통합 인라인롤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트랙과 마라톤 경기, 산업전 등으

로 나뉘어 개최된다.

24일에는 전주 인라인 롤러경기장에서 트랙경기가 열리고, 25일에는 전주 종합 경기장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대회와 인라인 산업전이 열린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군산시가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9~12월 하반기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을 시작한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란 시민 10인 이상이 모여 배우고자 하는 수강과목을 시에 요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최대 30시

간의 강좌를 지원해 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도이다.

하반기에는 난타, 예쁜글씨, 노래교실, 기체조 등 총 19개 강좌가 개설됐다. 강좌 신청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포털(www.gunsan.go.kr)에서 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영어 스토리텔링 지도사' 취득 과정 운영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서백현)는 9월부터 결혼 이주여성의 자기개발과 취업을 위해 '영어 스토리텔링 지도사' 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센터가 지역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할 결과, 영어권에 속하는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이

113명으로 이주여성의 22%를 차지하고 어학강사를 원하는데다 지역내 영어교육 수요가 높았다.

이에 따라 센터는 12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12시간 총 4개월 과정의 무료 영어지도사 과정을 운영 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새만금 산단 2공구 매립공사 내달 착수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

18일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시공업체인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다음달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진중공업과 컨소시엄을 이룬 선영건설, 청북건설 등 도내 건설업체도 공사에 참여한다.

이들 지역업체의 참여는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공구 입찰때보다 참여 기준을 크게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2공구 매립공사는 군산항에서 퍼 올린 준설토(1169만㎡)를 옮겨 산단부지 255만㎡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김제 원평천 하류에 2013년 '해창 갑문' 설치

김제평야를 가로지르는 국가하천인 '원평천' 하류에 바닷물 역류를 막기 위한 갑문이 오는 2013년 세워진다.

18일 국회 최규성(김제) 의원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원평천 하류인 김제시 죽산면 해창리에 갑문 설치를 위한 공사를 조달청에서 발주했다.

이번 갑문 공사는 원평천의 바닷물

역류에 의한 하천 홍수 예방과 인근 농지에 용수공급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총 347억원이 투입된다.

최 의원은 "해창갑문은 2013년까지 완공되고 내년까지 60여원을 들여 원평천을 준설하면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수해가 줄고 농업용수 확보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